

제 1 교시

국어 영역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 과학관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A]

연구관: 네, 안녕하세요. 술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학생: 먼저 금속으로 만든 술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고 싶고, 술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구관: 기록에 따르면 하나라 때에 금속으로 술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유적지에서 금속으로 만든 술이 발견될 정도로 역사가 오래되었답니다. 역사에 등장하는 술은 나라와 왕의 업적을 의미하여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B]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무쇠로 만든 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연구관: 한국 고고학 사전에 따르면 무쇠술은 형태에 따라 정과 부로 나눌 수 있답니다. 정은 다리가 세 개이고 주둥이가 약간 넓게 퍼진 모양이고, 부는 다리가 없고 주둥이가 좁은 술이랍니다. 사진 자료를 찾아서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학생: 네. 저는 민간에서 두루 사용하던 무쇠술은 밥을 짓는 데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연구관: 물론 무쇠술을 밥을 짓는 데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쇠술은 밥을 짓는 용도 외에도 국을 끓이거나 반찬을 만들 때와 소죽을 끓이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술뚜껑은 전을 부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C]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무쇠술로 지은 밥맛이 최고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관: 혹시 열의 대류와 전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학생: 네, 과학 시간에 배워 알고 있습니다.

연구관: 무쇠술로 지은 밥이 맛있는 이유는 열의 대류와 전도에 있답니다. 무쇠술은 바닥이 가장 두껍고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얇아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열을 받으면 술 전체에 열이 빠르고 고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무거워 내부 압력이 적당하고 오랫동안 높은 온도를 유지시켜 준답니다. 이처럼 무쇠술에는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밥알이 단단하고 찰기 있어 맛이 있는 겁니다. [D]

학생: 무쇠술은 과학적 원리가 담긴 훌륭한 발명품이었네요.

연구관: 그렇습니다. 현대의 발전된 과학 기술은 이런 전통 기술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참, 한술밥 먹는 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서로 허물없이 지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관계를 뜻합니다. 학생도 한술밥을 먹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냈으면 좋겠네요. [E]

학생: 네. 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는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A]~[E]에 나타난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학생은 인터뷰의 취지를 밝히며 인터뷰의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 ② [B]: 연구관은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사용하여 핵심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 ③ [C]: 연구관은 학생이 알고 있는 내용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보충을 해 주고 있다.
  - ④ [D]: 연구관은 과학적 개념을 정의하며 학생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 ⑤ [E]: 연구관이 학생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학생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2.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술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발표하려고 한다.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술의 역사와 술에 담긴 의미
  - 하나라와 고조선 시대에 금속 재료로 된 술을 사용했다는 기록 자료의 출처와 유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술으로 나라와 왕의 업적을 나타낸 역사적 사례를 보충하여 제시한다. .... ㉡
- 무쇠술의 종류와 무쇠술의 용도
  - 무쇠술인 정과 부를 각각 시각 자료로 제시한다. .... ㉢
  - 무쇠술이 밥을 짓는 제한된 용도로 쓰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무쇠술에 담긴 과학적 원리
  - 과학 시간에 배운 열의 대류와 전도의 개념을 언급하며 무쇠술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설 의뢰서]

저는 □□시 의회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 동물원 폐쇄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주민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평소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신 ○○○ 정책 국장님께 투표단을 대상으로 동물원 폐쇄를 지지하는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투표단은 □□시의 주민들로, 동물원 폐쇄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 보호 연대 정책 국장으로 동물 보호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입니다. 저는 그간 여러 학술 대회와 세미나에서 동물 보호와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의 시민으로서 요즘 우리 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원 폐쇄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중과 시선을 맞추며) 여러분들은 동물원의 동물 쇼를 보며 혹시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실제로 동물 쇼를 하는 동물들이 다양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쇼를 하는 동물뿐 아니라 우리 안에 갇힌 동물이 받는 고통도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코스타리카는 세계 최초로 동물원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2014년부터 동물원을 식물원으로 전환하고,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0년 후엔 동물원이 없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동물원도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원을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은 동물원이 멸종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멸종 보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보호 센터를 운영하면 됩니다. 또한 동물원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 교수의 책 『동물 해방』에는 ‘어떤 존재들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인간과 같다면 그들은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주체인 동물 역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생각해 보았을 때, 동물은 구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가뉘 두지 말아야 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시의 동물원이 폐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 의뢰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운 계획 중 연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시의 시민이라는 청중과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겠어.
- ② 동물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해야겠어.
- ③ 동물원 폐쇄를 위해 청중을 설득해야 하므로 동물원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겠어.
- ④ 청중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하므로 화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야겠어.
- ⑤ 청중이 동물원 폐쇄의 정당성을 따져 보고자 하므로 동물원 폐쇄가 경제적 이익과 직결됨을 강조해야겠어.

4.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시사적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가 동물원을 폐쇄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A]: 상황에 적절한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현재 □□시의 동물원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 구체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분석하고 있다.
- ④ [B]: 멸종 보호종 보호 센터 운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⑤ [C]: 화제와 관련된 책의 일부를 인용해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관점을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5. 동물원 폐쇄에 반대하는 입장의 청중이 위 연설을 반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코스타리카의 사례는 동물원 폐쇄와 관련이 없어서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② 동물원 폐쇄 시 멸종 보호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동물원 폐쇄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 ③ 동물원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④ 피터 싱어 교수의 생각은 동물원을 폐쇄하지 말자는 입장이 가깝기 때문에 설득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⑤ 동물의 권리를 밝히지 않고 동물원 폐쇄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시사적 화제에 대해 조사하여 글 쓰기

■ **학생의 초고**

얼마 전 지하철역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던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구했다는 ㉠ 아름다운 미담을 들었다. 이 시민은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신속하게 심폐 소생술을 시행했고,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다. 이처럼 심폐 소생술은 촌각을 다투는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한 응급 처치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폐 소생술의 시행률은 저조하다.

한 연구 기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은 심폐 소생술 시행 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이는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래서 다른 원인은 실습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재교육을 받지 못해 심폐 소생술을 잘 할 수 있을지 ㉢ 염려되어져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심정지 환자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반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를 시행할 수 있게 하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심정지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교육을 받은 지 1~2년 이상 경과하면 시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심폐 소생술을 ‘4분의 기적’이라고 한다. 이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심정지 발생 후 이른 시간 내에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면 환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작스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는 심폐 소생술 교육 방법의 개선과 지속적인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6.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것은?

[학생이 떠올린 생각]

- ㉠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잘 알려진 우화로 글을 시작한다.
- ㉡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가 직접 설문 조사한 내용을 제시한다.
- ㉢ 글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 해결 방안이 구체성을 지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한다.
- ㉤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속담을 사용해 글을 마무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학생의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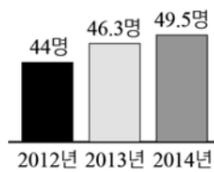
<보 기>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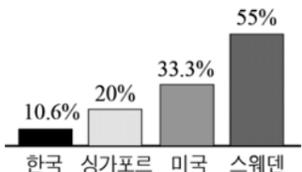
심정지 환자는 일반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90%에 달한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심정지 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 실습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심정지 발생 후 생존하여 회복하게 되는 환자의 비율이 10%로, 우리나라의 4%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통계 자료

1.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 현황  
(인구 10만 명 당)



2. 2014년 4개국 심폐 소생술 시행률 비교



3.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 시행을 꺼리는 원인

원인	응답(%)
심폐 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48.3
심폐 소생술 방법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38.8
심리적으로 당황해서	12.9

(다) 국내 전문가와의 인터뷰 내용

“스웨덴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 전체 교육 시간의 65% 이상을 실습 교육에 할애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은 실습 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한 반복적인 교육이 심폐 소생술 시행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처럼 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심폐 소생술 시행률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죠.”

- ① (가)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3을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일반인들이 심폐 소생술을 꺼리는 원인 중 재교육이 부족해 심폐 소생술 시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심폐 소생술 교육 경험자에 대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한다.
- ④ (가)와 (다)를 활용하여, 심폐 소생술에 대한 실습 교육을 강조하는 외국의 교육 사례를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⑤ (나)-1과 (나)-2를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우리나라는 심정지 환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심폐 소생술 시행률은 저조하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8. ㉠~㉤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아름다운’을 삭제해야겠어.
- ② ㉡: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 ③ ㉢: 피동 표현이 중복되므로 ‘염려되어’로 고쳐야겠어.
- ④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겠어.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어제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 핀 몇 송이의 꽃들이 우연히 눈에 들어왔다. 그 꽃들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화단이 아닌 보도블록 사이에 피어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피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꽃들로부터 나는 감동을 받았고, 또 꽃들이 서로의 줄기를 지탱 하듯 자란 모습을 보며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담쟁이’라는 시의 구절이 떠오르며 감동이 더해졌다. ‘㉠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라는 구절이었다. 이처럼 [A]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있었던 동아리 발표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생각이 났다.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겪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동아리 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뜻대로 똑심 있게 일을 추진했기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와 함께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던 동아리 부원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시의 구절처럼, 발표를 위해 힘든 과정을 견디며 함께 노력했던 동아리 부원들이 없었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발표를 포기하려 했던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 하나의 힘이 아닌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 협력에 있었다. 이러한 협력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9. 학생의 글에 사용된 글쓰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협력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
- ② 협력과 관련된 정서적 체험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깨달음과 연결한다.
- ③ 협력이 갖는 실용적 가치를 제시하고 그것이 갖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한다.
- ④ 협력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시하고 일반적인 협력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준다.
- ⑤ 협력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해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10. [A]에 들어갈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 건>

○ 첫 번째 문장은 ㉠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면서 꽃들의 상황과 연관 지어 쓸 것.  
○ 두 번째 문장은 ㉡에 대해 직유법을 사용하여 쓸 것.

- ① 꽃들도 ‘한 뺨이라도 꼭 여럿이’처럼 서로 협력하며 어려움을 견뎌 냈을 것이다. 서로를 위한 양보는 모두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것이다.
- ② 꽃들도 서로 의지하며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무엇보다 삶의 다양한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 ③ 꽃들도 척박한 환경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 놓였어도 함께 하는 자세가 중요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여건에 놓였더라도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 ④ 꽃들이 보도블록 사이에 필 수 있었던 것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시련을 이겨 냈기 때문이다. 흠어지면 약하지만 뭉치면 단단해지는 눈 같은 협력의 힘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게 하는 것이 아닐까.
- ⑤ 꽃들이 필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매우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햇살처럼 웃을 수 있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11.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보 기>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 [ 옮겨서 ] 밥을 먹었다.
- ㉡ 그녀는 내 말을  굳이 [ 구지 ] 따지려 들지는 않았다.
- ㉢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 [ 입문하여 ] 활동을 시작했다.
- ㉣ 나는 말을  더듬지 [ 더듬찌 ]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 ㉤ 그는  듚직한 [ 듚지칸 ] 성품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 ① ㉠의 예: 굽기다, 급하다
- ② ㉡의 예: 미단이, 뺨대다
- ③ ㉢의 예: 집문서, 만누이
- ④ ㉣의 예: 께안다, 꿈같이
- ⑤ ㉤의 예: 굽히다, 한여름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조사 중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가 있다.

- ① ‘국수라도 먹으렴.’에서의  라도
- ②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
- ③ ‘그 과자를 먹어든 보았다.’에서의  든
- ④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
- 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 누나는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 할아버지께서 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  
 ㉣ (선생님과의 대화 중)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아버지와와의 대화 중)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 ① ㉠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은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르다<sup>1</sup>** [이르러, 이르니] ㉠ 【...에】  
 ①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목적지에 이르다  
 ②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결론에 이르다

**이르다<sup>2</sup>** [일러, 이르니] ㉡  
 ①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일러 주었다. ㉡아이들에게 주의하라고 이르다.  
 ② 【...을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를 도루묵이라 이른다.

**이르다<sup>3</sup>** [일러, 이르니] ㉢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앞서거나 빠르다.  
 ㉠그는 여느 때보다 이르게 학교에 도착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 ① ‘이르다<sup>1</sup>①’과 ‘이르다<sup>1</sup>②’의 유의어로 ‘다다르다’가 있겠군.
- ②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와 ‘이르다<sup>3</sup>’은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겠군.
- ③ ‘이르다<sup>1</sup>’은 규칙 활용을 하지만 ‘이르다<sup>2</sup>’와 ‘이르다<sup>3</sup>’은 불규칙 활용을 하겠군.
- ④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이르다<sup>3</sup>’은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겠군.
- ⑤ ‘이르다<sup>3</sup>’의 용례로 ‘올해는 예년보다 첫눈이 이른 감이 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5. 다음은 잘못된 문장 표현을 고쳐 쓴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단어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 나이가 많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 나이가 크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 ①
- 조사의 쓰임이 잘못된 경우  
 ㉡ 우리는 아버지에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 우리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려고 모였다. .... ②
- 어미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  
 ㉢ 집에 가던지 학교에 가던지 해라.  
 →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잘못된 경우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었다.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 ④
- 문장 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된 경우  
 ㉤ 그녀는 노래와 춤을 추고 있다.  
 → 그녀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다. .... ⑤

16.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  
 나라히 파망(破亡)호니 :파·과 ㅁ·림:썸 잇고  
 ·갓 ·안 보·미 ·플·와 나모:썸 가·괘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嘆)·호니 고·지 ·눗·므를 썸·리게 ·코  
 여·희여·슈물 슬·후니 :새 ㅁ·스·물 :놀·래·느·다  
 봉화(烽火) | :석·드·를 나·세·사·니  
 자·뵈트 음서(音書)·는 만금(萬金)·이 ·스·도·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언해』 중에서 -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 안의 봄에 풀과 나무만이 깊어 있도다.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헤어져 있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가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편지는 만금보다 값지도다.

- ① ‘보·미’는 현대 국어의 ‘봄에’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끊어 적기를 하였군.
- ② ‘플·와’가 현대 국어의 ‘풀과’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방점이 쓰였군.
- ③ ‘썸·리게’가 현대 국어의 ‘뿌리게’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군.
- ④ ‘ㅁ·스·물’이 현대 국어의 ‘마음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ㅁ’, ‘·’가 사용되었군.
- ⑤ ‘드·를’이 현대 국어의 ‘달을’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계관이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성리학은 이(理)와 기(氣)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理)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理)는 모든 사물에 본성으로 내재한다. 특히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에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를 기(氣)에서 ㉠ 찾는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학자 정약용은 성선설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말하며 ㉡ 새로운 인성론을 주창하였다.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인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도덕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즉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학자 최한기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氣)라는 보편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기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난다. 인간의 윤리도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며 이런 지각은 추측에 의해 확장된다. ‘추측’은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공부나 실천과 같은 경험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해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최한기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적 수양을 강조하였으며, 정약용과 최한기는 실천과 소통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성리학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 ②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성리학에서와 달리 최한기는 본성을 절대 선한 것으로 보았다.
- ④ 성리학에서는 기는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⑤ 성리학에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이(理)의 개별적 속성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18.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덕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날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익으로 유혹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 ① 사람은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 ② 사람은 남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바라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사람에게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한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 ④ 사람은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선이 실현된다.
- ⑤ 사람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추측을 통해 주변 사물과 소통하며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에는 외부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관리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집착해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는 더욱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려 했다.

- ① 정약용은 부정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 하더라도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겠군.
- ② 정약용은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 ③ 최한기는 여러 관리들이 타고난 악한 기로 인해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겠군.
- ④ 최한기는 본분을 망각한 관리들의 모습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⑤ 최한기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당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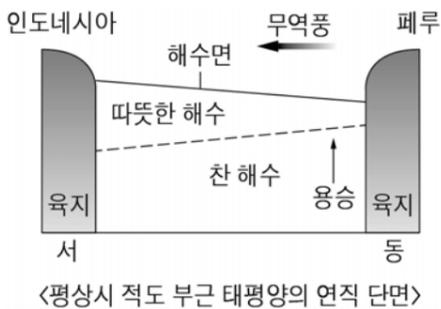
2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 ②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 ③ 나는 저금했던 돈을 은행에서 찾았다.
- ④ 어떤 손님은 항상 이 과자만 찾는다.
- ⑤ 어머니가 빗자루를 찾는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의 여러 곳에서 장기간에 걸친 가뭄, 폭염, 홍수, 폭우 등과 같은 이상 기후가 발생하여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는 ㉠ 엘니뇨와 ㉡ 라니냐가 있다.

평상시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 있는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으로부터 서쪽으로 무역풍이 지속적으로 분다. 이 무역풍은 동쪽에 있는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 방향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서태평양 쪽에서는 두껍고 동태평양 쪽에서는 얇아진다. 이와 함께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에서는 서쪽으로 쓸려 가는 표층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차가운 심층 해수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결과 적도 부근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는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낮아지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서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가 증발하여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따뜻한 해수가 공기를 데워 상승 기류를 발생시켜 저기압이 발달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강수량이 많아진다. 반대로 남아메리카의 페루 연안에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여 고기압이 발달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적도 부근 태평양의 무역풍은 2~6년 사이로 그 세기가 변하는데, 이에 따라 적도 부근 태평양의 기후 환경은 달라진다.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태평양 동쪽의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지며 해수면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따뜻한 표층수가 동쪽에 머무르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비해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적도 부근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데 이 현상이 엘니뇨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발생하고,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반면에 페루, 칠레 등에서는 평상시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이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등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

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라니냐라고 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홍수가 잦아지거나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페루, 칠레 등에서는 평상시보다 더 건조해져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상승하고 서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하강하여 두 지역의 기압차는 평상시보다 더 커진다.

\* 용승: 표층 해수의 이동에 의해 심층의 찬 해수가 상승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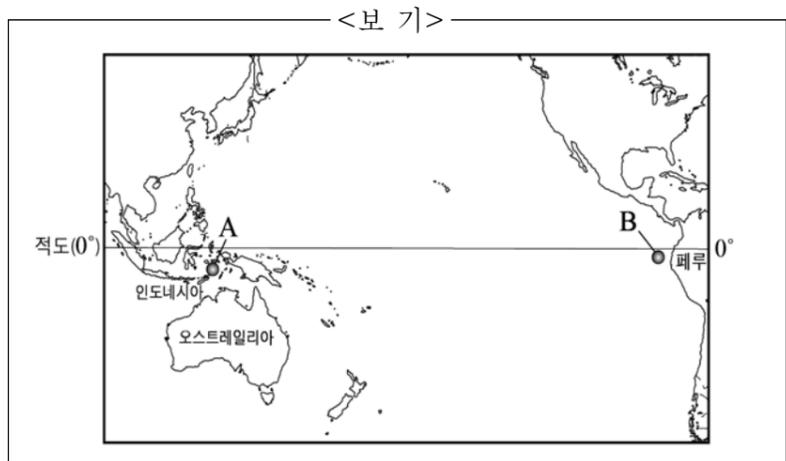
2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들을 제시하고 그 현상들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검증하고 있다.
- ③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현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유용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⑤ 현상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서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 ② 평상시에 무역풍은 적도 부근 태평양의 표층수를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 ③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면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 ④ 평상시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 저기압이 발달하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의 강수량이 많아진다.
- ⑤ 평상시에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수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진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활용하여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해역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일 때보다 ㉡일 때 더 높다.
- ② B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일 때보다 ㉡일 때 더 두껍다.
- ③ ㉠일 때, A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 ④ ㉠일 때, A 해역 부근 지역에서는 가뭄, 산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일 때, A와 B의 기압 차는 평상시보다 더 크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업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끝없이 경쟁한다. 이러한 경쟁의 전략으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기업인수합병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 간의 결합 형태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 다각적 인수합병으로 ㉠ 나눌 수 있다.

먼저 수평적 인수합병은 같은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이다. 예를 들면 두 전자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전자 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수평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가 결합하여 불필요한 경쟁이 줄고 이전보다 큰 규모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인수합병한 기업은 생산량을 ㉡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 가격 경쟁력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수평적 인수합병 이후에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 일어날 경우, 이는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직적 인수합병은 동일한 분야에 있으나 생산 활동 단계가 다른 업종 간에 이루어지는 인수합병이다. 이러한 수직적 인수합병은 통합의 방향에 따라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과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을 통합하면 후방 통합이고, 자동차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통합하면 전방 통합이 된다. 이렇게 수직적 인수합병이 ㉣ 이루어지면 생산 단계의 효율성이 증가하여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수합병한 기업 중 특정 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가 위협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각적 인수합병은 서로 관련성이 적은 기업 간의 결합이다. 예를 들면 한 회사가 전자 회사, 건설 회사, 자동차 회사를 결합하여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만약 건설 회사의 수익성이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다른 회사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킨다면 기업의 안정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외형적으로만 비대해질 경우,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외적인 성장에만 ㉤ 치우쳐 신기술 연구 등과 같은 내적 성장을 위한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많은 직원이 해직되거나 전직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조직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수합병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규모의 경제: 생산 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또는 수익 향상의 이익.

\* 시장점유율: 경쟁 시장에서 한 상품의 총판매량에서 한 기업의 상품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

\* 거래비용: 각종 거래 행위에 수반되는 비용.

24.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기업인수합병이 가지는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② 기업인수합병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보여 주고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③ 기업인수합병의 개념을 살펴보고 기업인수합병의 유형을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상반된 견해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하고 기업인수합병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기업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조건들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이익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 ② 기업은 수직적 인수합병을 통해 생산 단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③ 기업이 다각적 인수합병을 한 경우 위험을 분산하여 안정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기업은 수평적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 관계에 있던 기업과 결합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줄일 수 있다.
- ⑤ 기업은 수직적 인수합병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에 있으나 생산 활동 단계가 같은 업종끼리 결합할 수 있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부도 위기에 놓인 A자동차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때 경쟁 관계에 있던 B자동차 회사는 생산 단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A자동차 회사 노조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A자동차 회사와의 인수합병에 성공했다. 이후, A자동차 회사와 결합한 B자동차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아졌으며,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후 B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철강 회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인수합병하여 B사가 되었다. 그런데 B사는 신기술 연구에 소홀했던 탓에 자동차 분야에서 C자동차 회사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 ① A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B자동차 회사와의 인수합병에 반대한 이유는 A자동차 회사가 B자동차 회사에 다각적 인수합병이 되었기 때문이군.
- ② B자동차 회사가 A자동차 회사를 인수합병한 이유는 가격 경쟁력을 증가시켜 이익을 내려 했기 때문이겠군.
- ③ B자동차 회사는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철강 회사를 후방 통합하였군.
- ④ B자동차 회사에 의해 인수합병된 철강 회사의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B사 전체에 위험이 될 수도 있겠군.
- ⑤ B사가 자동차 분야의 경쟁에서 C자동차 회사보다 뒤처진 이유는 신기술 연구에 소홀했기 때문이군.

27.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구분할
- ② ㉡: 실현할
- ③ ㉢: 촉구될
- ④ ㉣: 포함되면
- ⑤ ㉤: 왜곡되어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화 작품에는 점, 선, 면, 형태, 색채와 같은 조형 요소와 통일성, 균형, 비례와 같은 조형 원리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들은 감상자에게 시각적으로 작용함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화의 조형 원리 중 하나인 통일성은 화면의 여러 조형 요소들에 일관성을 부여하여 질서를 갖추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 회화의 통일성은 시각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적 통일성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각 조형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나 규칙성 등을 통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작품을 보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것으로 형태나 색채 등의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로 표현된다. 지적 통일성이란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는 개념적인 것들이 주제와 연관성을 가지는 통일성을 의미한다. 시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지는 않더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그와 관련된 것들로 그림을 완성하였다면 이는 지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각적인 통일성이 조형 요소의 형식적 질서라면, 지적인 통일성은 내용에 대한 질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인접, 반복, 연속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인접은 각각 분리된 요소들을 가까이 배치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는 일도 몇몇 특정한 별들을 인접시켜 해석함으로써 형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문자를 인접시켜 단어를 만드는 것도 통일성의 질서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복은 부분적인 것들을 반복시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반복되는 것에는 색깔이나 형태, 질감은 물론이고 방향이나 각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속은 어떤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연관을 갖고 이어지게 하여 통일성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연관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길은 어떤 것에서 연관된 그 다음의 것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가게 된다. 시각적으로는 형태나 색채 등이 화면에서 연관되는 것을 의미하고, 지적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의미나 개념이 서로 연결되며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통일성은 작품에서 주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형 원리이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작품 속의 다양한 조형 요소와 그 조형 요소들이 이루는 일관된 질서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했을 때 감상자는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에 한발 더 다가서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 ① 회화에서 통일성의 개념
- ② 회화에서 통일성의 종류
- ③ 회화의 통일성을 구현하는 방법
- ④ 회화에서 통일성을 잘 구현한 작가들의 작품
- 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의 의의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각적 통일성은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로 표현된다.
- ② 회화의 통일성은 작품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조형 요소이다.
- ③ 회화 작품에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가 다양하게 어우러져 있다.
- ④ 작품에서 주제와 관련된 대상들을 연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회화에서 통일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0. ㉠과 관련하여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너도밤나무 숲」

㉡ 클림트의 「너도밤나무 숲」은 화면의 근경에서 원경에 이르기까지 점점 작아지는 수직의 너도밤나무들을 반복하여 표현했다. 각각의 나무들은 개별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의 모습으로 보이며 시각적 연관을 통해 통일성을 느끼게 한다. 또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 등 가을과 관련한 황금 색깔로 배경을 가득 채워 늦가을 숲의 정취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갈수록 나무의 형태를 확대하여 시각적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② ㉡는 곧게 뻗은 나무의 수직적인 형태를 반복하는 반복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③ ㉡는 나무 하나하나의 모습을 개별적으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연속의 방법을 사용해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④ ㉡는 바닥에 떨어진 낙엽과 서 있는 나무를 분리하여 서로 멀리 배치하는 인접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 ⑤ ㉡는 작품을 보는 순간 직접적으로 보이는 낙엽의 황금 색깔을 통해 계절의 순환이라는 주제를 보여 주는 지적 통일성을 구현하고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향단아 ㉠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은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넛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화자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 ② ㉡은 작품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화자와 청자가 갈등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소망에 이르기 위한 수단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주변의 대상들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⑤ ㉡과 달리 ㉠은 화자의 정서를 빗대어 보여 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간은 이상을 동경하는 존재로,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미련이나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고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한다. 이런 고뇌와 좌절은 유한적 존재인 인간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보여 주며, 문학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 ①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새끼 피꼬리들’은 이상에도 달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결별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군.
- ② ‘저 하늘’은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과 연관된 공간이겠군.
- ③ ‘울렁이는 가슴’은 현실적 제약을 벗어나 이상을 성취하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서(西)으로 가는 달’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화자를 나타내고 있군.
- ⑤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지라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33.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삶의 좌절을 표현한 것이다.
  - ②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는 보람을 표현한 것이다.
  - ③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는 삶의 시련과 이를 극복한 성취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④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는 삶의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그러?” /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A]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그러. 뱀어넌뱀또(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플구싶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 순전 판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 에 그 집에서 춤 봤구면.”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영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썬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넋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였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뿔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였다. /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루다 객고가 썩어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데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립다 취했으니께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불상을 닦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였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쭉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뎡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별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였다.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였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B]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져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였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열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였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티었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당게 고양이 안 당게 야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뽕(부엌)에 채우(겨우) 지랑(간장)뽕이 읊으니 뽕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든 뽕술에 쩌 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 만혈쥬.”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였다.

-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

\* 배참: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함.  
\* 여투다: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다.  
\* 드티다: 밀리거나 비껴나거나 하여 약간 틈이 생긴다.

3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
- ② '노파'는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유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스페어 운전자'들은 그들의 자질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별이가 좋았다.
- ④ '총수'는 비단잉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한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유자'는 그룹 내 '동료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적당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3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을, [B]는 주인공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자소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와 전통적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또한 지역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체를 사용했고,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인 인물을 통해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여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자 했던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① 유자가 사용하는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군.
- ② 유자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유자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하여 그가 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 온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총수의 운전자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빈천(貧賤)을 팔려고 권문(權門)\*에 들어가니  
덤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라하니 그건 그리 못하리  
- 조찬한 -

(나)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 서 홉 밥 닷 홉 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욱하다  
설 데운 승냥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러한들 ㉡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피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줌뭉이 모아 넣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주검 밟고 피를 건너 ㉢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라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 불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고  
손수 농사짓기가 ㉤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권문: '권문세가'의 준말. 권세가 있는 집안.  
\* 누항: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누추한 곳을 이룸.  
\* 풍조우석: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 감사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구분.  
\* 경당문노: 밭 갈기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함.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나)에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심화한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 ② ㉡: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자가 지키려는 뜻
  - ③ ㉢: 화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던 전쟁
  - ④ ㉣: 한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때
  - ⑤ ㉤: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태도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시대에 여러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조찬한의 시조와 박인로의 「누항사」에는 선비들이 현실적 고민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빈천'은 선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누항'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군.
- ④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권문'을 찾은 모습과 (나)의 '안빈 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채봉과 장필성은 혼약을 하지만,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돈을 주는 것과 채봉을 허 판서의 첩으로 들이는 것을 대가로 벼슬을 약속 받는다.

김 진사 내외가 상경하여 이왕 객줏집으로 임시 거처를 정하고, 이튿날 허 판서를 가서 보니, 허 판서가 김 진사를 보고 반겨,

“아! 김 현감 오시나. 그래 올라오는데 노둑이나 아니 냐나? 자, 우선 급한데 과친 현감을 구경하려나.”

하더니, 문갑에서 현감 칙지\*를 내어 주는지라. 김 진사가 칙지를 보고 가슴이 주저앉으며 혼 빠진 사람처럼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받지를 못한다. 허 판서가 거동을 보고 꺾꺾 웃으며,

“왜 그래? 너무 반가워서 그러하지.”

김 진사가 일어나 절을 하여 칙지를 받아 앞에 놓고, “대감 혜택으로 천은을 입었습니다마는, 운수가 불길하여 올라오다가 죽을 풍파를 겪고 올라왔으나, 대감 죄을 낮이 없습니다.” / 허 판서가 깜짝 놀라며,

“응, 그게 무슨 소리냐? 풍파를 겪다니?”

김 진사가 전후의 말을 다하니, 허 판서가 별안간 눈이 실 쪽하여지며, 조금도 가없는 생각이 없이,

“허! 이런 맹랑한 놈 보아! 제가 어찌하였든지 과친 현감을 할 터이니까, 내려갈 때에는 허락을 다하고 지금은 탄소리를 해.”

하며, 부르르 놀라는 체하고 김 진사의 얼굴을 훑어보며,

“대단히 놀라운 말일세. 재물은 도적이 가져갔거니와, 딸이야 못 찾아 가지고 온단 말인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대감 위력이나 빌어 가지고 찾고자 하여 올라왔습니다.”

허 판서가 왈각 성을 내어 큰 소리로 꾸짖어 가로되,

“이놈, 부모가 되어서 난(亂)중에 자식을 잃고 찾을 생각도 아니하고, 뉘 위력을 빌어서 찾으려고 내버리고 왔어. 맹랑한 놈.” / 하더니, 하인을 불러서 구류를 시키라 하며,

“이놈, 네 딸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오천 냥을 마저 바치든지 해야 무사하리라. 이놈아, 이따위 소리를 뉘 앞에서 하느냐. 시골 내려간 동안에 주선을 다 해서 주마고 하였더니, 현감은 할 터이니까, 지금 와서 그까짓 소리를 한단 말이나.” / 하고, 다시 말할 새 없이 가두더라.

(중략)

이때 채봉은 취향과 약속한 후 만리교에서 이 부인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하여 취향과 취향 어미를 데리고 평양으로 도로 내려와 취향의 집에서 있으며, 부친의 기별을 기다리고, 차차 길을 얻어 장필성에게 통하려고 우선 서화(書畵)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채봉이는 만리교에서 도적이 들기 전 두어 식경이나 앞서 도망한 고로, 김 진사가 그 지경이 된 줄은 모르고 있더라. 이때 부인이 주야 열흘 만에 평양에 당도하니 어디로 가리오. 속으로 생각하되,

‘㉠ 애기가 이리로 오면 필연 취향의 집으로 왔을 터이니, 취향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옳다.’

하고 대동문을 들어서며 좌우를 돌아보고, 탄식하는 말이,

“㉡ 산천과 물색은 의구하다마는 나는 불과 한 달 동안에

행색이 이렇게 초췌하여졌단 말이나?”

이렇듯 한숨지으며 고을에 들어서서 취향의 집으로 들어가니, 이때 채봉은 취향을 데리고 선후 방침을 의논하며 앉았는데, 이 부인이 안으로 들어오며 취향부터 부른다.

“취향아, 취향아!”

채봉과 취향이 부인의 음성을 어찌 모르리오. 한걸음에 우르르 뛰어나오는데, 이 부인이 미처 채봉은 보지 못하고 앞선 취향부터 보고,

“취향아, 우리 댁 아기씨 여기 왔니?”

채봉이 급히 이 부인의 손을 잡고,

“어머니, 나 여기 있소.” / 이 부인이 얼싸안고,

“㉢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우리 집이 오늘날같이 불시에 망할 줄을 꿈에나 생각하였을까?”

채봉이 이 말을 듣고 소스라쳐 놀라 울며,

“망하다니! 불초녀(不肖女)로 무슨 풍파가 났소?”

이 부인이 정신을 진정하고 방으로 들어가 앉으며,

“어떻게 되어서 내가 이리로 왔니?”

채봉이 부인의 행색을 보고, 이 말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도리어 묻기부터 한다.

“글쎄 어머니, 나 여기에 온 것을 장차 이야기할 것이니,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하시오. 아버지는 어디 계시며, 어머니는 무슨 일로 이렇듯이 혼자 오시오?”

하는데, 부인은 한참 동안 가슴이 답답하여 앉았다가, 만리교에서 도적을 만난 일과, 서울에 갔다가 허 판서가 영감을 가두고 억박지르던 말을 다 하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돈을 오천 냥을 하여 놓든지, 너를 데려오든지 하라 하니, 너는 아버지를 살리려거든 나와 같이 서울로 올라가자.”

채봉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머금고 지난날 만리교 주막에서 취향과 약속하고 밤중에 도망하여 온 말을 대강하여 말하고,

“어머니, 나는 죽어도 서울로 올라가기는 싫소. 이 자식은 죽은 걸로 아십시오.”

“네가 아니 가면 아버지는 아주 돌아가시란 말이나. 너를 찾아 놓든지, 돈을 해서 놓아라 하니, 너라도 가야지.”

채봉이 묵묵히 앉아서 홀로 사세를 생각하니,

‘㉣ 가련한 부모는 이미 범의 아구리에 들었으며, 가산은 탕진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 몸은 죽어도 먹은 마음 변할 생각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리오. 내가 올라가면 장필성의 죄인이 될 것이요, 돈도 못 하고 나도 아니 올라가면 부모는 환란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이 몸이 죽으면 모를까. 죽으면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려니와, 늙고 병든 부모는 속절없이 죽는 사람이라. ㉤ 죽기도 살기도 어려워니 슬프다. 천지가 광활하나 가련한 박명 여자의 한 몸을 용납할 곳이 없는가. 세상에 뉘가 만일 돈을 주어 내 부모를 구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데려다가 종노릇을 시키거든 종노릇을 하고, 기생 노릇을 시키거든 기생 노릇이라도 하리라.’

이와 같이 결심하니, 세상에 한없는 것은 눈물이라.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

\* 칙지: 왕이 내린 명령.

4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부인은 재물을 잃은 것이 채봉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 ② 채봉은 도망 후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취향의 집에 숨었다.
- ③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채봉을 찾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다.
- ④ 채봉은 이 부인과 재회한 후, 도망 온 대강의 사연을 이 부인에게 말했다.
- ⑤ 김 진사는 허 판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칙지를 받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내적 독백을 통해 '이 부인'이 '취향'의 집으로 가려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자연과 대비되는 '이 부인'의 상황을 제시하여 '이 부인'의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의문의 진술을 통해 '이 부인'의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비유적 표현을 통해 채봉의 '부모'가 직면한 상황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채봉'의 행위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채봉감별곡」은 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행위가 현실적인 욕망에서 기인하며, 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 전기적(傳奇的)인 요소가 거의 없고 우연적인 요소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인물을 제시한 점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 ① 채봉은 혼약을 지키려고 평양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채봉은 천한 신분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③ 허 판서의 매관매직과 횡포로 채봉의 집안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부정적 현실이 드러나 있군.
- ④ 김 진사는 딸을 첩으로 보내면서까지 출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채봉이 만리교에서 도적이 들 것을 예측하고 피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구성에 비현실적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철호는 월남 가족의 가장으로, 실성한 어머니, 만삭의 아내, 상이군인인 남동생 영호, 힘들게 살아가는 여동생 명숙과 함께 해방촌의 판잣집에서 살고 있다. 철호는 은행 강도가 된 동생 영호가 경찰서에 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 S# 103. 철호의 방 안

철호가 아랫방에 들어서자 윗방 구석에서 고리짝을 뒤지고 있던 명숙이가 원망스럽게  
 명숙: 오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슈.  
 철호는 들은 척도 않고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명숙: 어서 병원에 가 보세요. / 철호: 병원에라니?  
 명숙: 언니가 위독해요. / 철호: .....  
 명숙: 점심때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죽을 애를 다 쓰고 그만 어린애가 걸렸어요. / 철호: .....  
 (중략)

㉡ S# 104. 동대문 산부인과 복도

철호가 419호실 앞으로 휘청거리고 와서 조용히 노크한다.  
 이윽고 문이 열리면 텅 빈 실내를 간호원이 소독하고, 한 간호원이 철호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간호원: 혹시 이 방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신가요?  
 철호: .....네. / 간호원: .....  
 철호: ..... / 간호원: 한 시간 좀 지났어요.  
 철호: .....? ..... / 간호원: 부인과 과장실에 가 보세요.  
 하고 문을 닫는다. 화석 같은 철호.

S# 105. 시체 안치실 앞

철호가 유령처럼 걸어온다.  
 문 앞에 와서 손잡이를 잡다가 힘없이 놓고 돌아선다.  
 눈앞에 뽕양게 흐린 채 거기 우두커니 서 있을 뿐.....

㉢ S# 107. 거리

허탈한 상태로 걸어가는 철호.  
 여기서 자신의 소리가 겹친다.  
 ㉠ 소리: (벽력같은 소리로) 영호야!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던 말이다.  
 입은 찢어지고 눈에선 눈물이 사정없이 솟고 그러면서도 눈만은 정기(精氣)가 차서 앞을 정시(正視)하며.....

S# 110. 다른 거리

문방구점, 라디오방, 사진관, 제과점. 그는 길옆에 늘어선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며 걷고 있다. 하나 철호의 눈에는 무엇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어느 문 앞에 걸린 간판 앞에 우뚝 선다. '치과' 그것을 쳐다보는 철호의 얼굴이 점점 찌푸러지며 손으로 볼을 움켜쥐었다. 철호가 주머니에서 만 환을 꺼내 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간다.

S# 113. 거리

철호가 볼을 만지며 걸어온다.  
 그는 또 우뚝 선다. 다른 치과 앞이다. 그가 한참 생각다 들어가면 —㉡ O.L.\*— 철호가 이번에는 양쪽 볼을 손으로 누르며 나온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입안의 피를 뺀다.

㉣ S# 116. 그 집 앞

그 집 옆 골목으로 비틀거리고 나온 철호가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는다.

